

# 덱사메타손 충격 요법 또는 단기 프레드니솔론 치료 이후 CIDP의 장기 완화

## Long-term remission of CIDP after pulsed dexamethasone or short-term prednisolone treatment

F. Eftimov, MD  
M. Vermeulen, MD, PhD  
P.A. van Doorn, MD, PhD  
E. Brusse, MD, PhD  
I.N. van Schaik, MD, PhD  
On behalf of the PREDICT study group

**목적:** 만성염증탈수초다발신경병증(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CIDP)에서 일정 기간 제한된 강력한 치료 이후 장기간의 완화가 달성된다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s)나 정주 면역글로불린(IV immunoglobulin, IVIg)의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우리는 다기관 무작위대조시험 방법으로 6개월 간격의 충격 요법과 8개월 동안 매일 프레드니솔론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관찰 자료를 연구하였다.

**방법:** 치료 효과의 평가는 Inflammatory Neuropathy Cause and Treatment disability scale과 Rivermead Mobility Index로 하였고 CIDP Disease Activity Status (CDAS) scale을 이용하여 범주화하였다.

**결과:** 2011년 3월을 기점으로 하여 40명 중 39명의 환자를 연구에 포함하였고,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4.5년이었다. CDAS criteria에 따른 완치(>5년 치료 중단)나 완화는 한 번이나 두 번 과정의 덱사메타손 충격 또는 프레드니솔론 매일 복용 요법 후 39명 중 10명(26%)에서 이루어졌다. 첫 치료 후 완화에 도달한 환자의 절반이 재발(median treatment-free interval: 덱사메타손 17.5개월, 프레드니솔론 11개월)하였다.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었던 12명(58%) 중 7명에서 다른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에 반응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진단이 대체되는 경우는 없었다.

**결론:** 완치나 장기 완화는 한 번이나 두 번 과정의 덱사메타손 충격 또는 8개월 동안의 프레드니솔론 매일 복용 요법 시행 후 1/4 정도의 환자에서 이루어졌다.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CIDP라는 진단을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근거의 분류:** 이 연구는 CIDP에서 덱사메타손 충격 요법 또는 8개월간의 매일 프레드니솔론 복용 요법이 장기 완화를 유도하며, 이에 대한 Class IV의 근거를 제시한다.

Neurology® 2012;78:1079-1084

**Table 1 Chronic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neuropathy Disease Activity Status<sup>7</sup>**

1. Cure:  $\geq 5$  years off treatment
2. Remission:  $< 5$  years off treatment
3. Stable active disease:  $\geq 1$  year on treatment
4. Improvement:  $\geq 3$  months  $< 1$  year on treatment
5. Unstable active disease: abnormal examination with progressive or relapsing course